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유 주 연

이화여자대학교 / 석사 졸업생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성별 간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0.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성차별 둔감형 여성’, ‘성차별 민감형 여성’, ‘성차별 저항형 여성’ 총 3가지 유형, 남성은 ‘성평등 인식형 남성’, ‘역차별 인식형 남성’ 총 2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여성들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은 유형일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과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반면, 남성들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은 유형일수록 역차별에 대한 지각이 높아졌다. 남녀 모두 성차별 메타-인식 수준이 높은 유형일수록 더 높은 성역할갈등과 이성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 현상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 메타-인식(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성별갈등,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연구는 유주연(2019)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성차별 문제에 대한 2·30대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별 간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79.4%)과 20대 남성(68.2%) 모두 우리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지만, 일상생활 중 여성 대상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은 73.5%인 것에 비해 남성은 3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이 아닌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이 5월 29일 발행한 ‘사회통합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52.3%의 응답자가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내일신문, 2019. 6. 4). 이처럼 성별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별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성별 간 갈등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대부분 개인의 여성혐오나 성차별주의 의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성차별 인식 연구는 개인의 성차별적 편견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별 갈등이라는 심리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별 갈등은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성별 집단의 ‘상호작용’이다. 집단 내 담론을 구축하며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하며, 이러한 공유된 가치관이 다른 성별 집단과 부딪히면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성별 내·외집단의 규

범과 가치관, 한국 사회의 성차별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개인의 성차별적 편견만큼이나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집단·사회적 차원에서의 성차별 인식은 개인이 자기, 타인, 사회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양식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성별 갈등에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별갈등이라는 심리사회적 현상과 그 속의 개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에 대한 집단·사회차원의 성차별 인식, 즉 성차별 메타-인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성차별 메타-인식이 개인, 집단, 사회 차원에서의 태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성차별 메타-인식

자기 및 타인의 인상에 대한 지각인 대인지각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인상인 자기지각(self-perception)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인상인 타인지각(other-perception),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는 인상에 대한 생각인 메타지각(meta-perception)으로 크게 나뉜다. 이러한 대인지각은 개인이 자신의 대인관계를 평가하고 맺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정태연, 2006; 정고운, 조민수, 박선웅, 2017에서 재인용). 다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일 경우, 이러한 대인지각은 각 개인이 가진 여러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다. 상호작용하는 상대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인 타인-고정관념(other-stereotype)을 통해 상대에 대한 타인지각을 형성하기도 하고, 상대가 속한 집단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정관념인 메타-고정관념(meta-stereotype)을 통해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메타지각을 가지기도 한

다(Vorauer, Main & Connell, 1998). Vorauer 등 (1998)은 이중에서 메타-고정관념이 타인-고정관념보다 집단 간 상호작용 상황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메타-고정관념이 자기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고정관념에 비해 반응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타-고정관념이 타인-고정관념보다 인종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을 예측하는 데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Finchilescu, 2010). 이외에도 부정적인 메타-고정관념은 외집단과의 상호작용회피, 도움 추구 억제, 상호작용 시 자기개념에 위협을 느끼게 한다(Vorauer, Main & Connell, 1998, Finchilescu, 2010, Wakefield, Hopkins & Greenwood, 2013).

이후 Putra(2014)는 메타-고정관념의 개념을 집단차원으로 확장하여 내집단 메타-편견(in-group metaprejudice)과 외집단 메타-편견(out-group metaprejudice)로 나누었다. 외집단 메타-편견은 ‘외집단 구성원들이 내집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으로 정의하였으며, 내집단 메타-편견은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이슬람 참여자들의 내집단 메타-편견과 외집단 메타-편견 모두 이슬람 소수지파와 기독교 집단에 대한 편견(타인-편견)을 예측하였으며, 각 메타-편견이 높을수록 이슬람 소수지파 혹은 기독교 집단이 내집단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지각하였다. 이처럼 개인이 내·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메타-편견은 개인의 외집단과 외집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사회 구조적 권력의 차이가 일어날 경우, 사회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 또한 개

인적·집단적 태도와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집단 구성원들이 현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부당하며, 안정적이지 않다는 집단적인 인식을 공유할 때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때 사회구조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Tajfel, 1981; Glick & Whitehead, 2010 재인용). 이로 인해 집단 구성원들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인식을 과장 혹은 축소하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차별을 당하는 소수집단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지배집단은 사회적 변화를 저지하고 특혜를 받는다는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집단이 겪는 차별을 축소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집단이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Cameron, 2002).

현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 또한 여성과 남성 집단에 대한 메타-편견들과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집단 내, 집단 간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고 강화되며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성별 구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shared group level narrative)”(Sloman & Fenbach, 2017; 김수아 & 이예슬, 2017 재인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무엇이 페미니즘이고 무엇이 적절한 실천 양식인지 서로 논의하고 구축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도 영향을 받고 변한다(이다혜, 2012; 오보영 & 이상희, 2017 재인용). 그리고 변한 가치관으로 이전과 다르게 자신과 환경을 해석 및 구성하게 된다(김아령, 2007; 오보영 & 이

상회, 2017에서 재인용).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성원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다시 깨달았다고 보고하였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차별과 여성을 제한시키는 사회적 압력, 일명 ‘코르셋’과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지각하게 있었으며,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예전보다 여성차별적 발언에 직접적으로 반감을 표현하고, 성차별적 발언하는 상대에게 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여성 인권 문제들에 대해 알리고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오보영 & 이상희, 2017). 반면, 남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능력주의 및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환원하는 등 여성차별 문제를 축소하는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적 담론과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지나치게 요구함으로 인해 남성들이 역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반페미니즘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었다(김수아 & 이예슬, 2017). 이러한 담론은 여성운동 커뮤니티와 반대로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부인하며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여론을 저지한다(Cameron, 2002;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내집단의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외집단의 내러티브는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극화 현상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김수아 & 이예슬, 2017). 이처럼 극화된 성별 집단의 내러티브는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여론으로 자리 잡은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2018)에 의하면, 여성의 지위는 충분히 향상되었거나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며, 성차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의 남성이 20대 남성의 50.5%, 30대 남성의 38.7%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집단의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 즉 성별 집단에 대한 메타-편견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성차별 메타-인식(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으로 정의하고, 2·30대들의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각 유형들 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갈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Glick과 Fiske(1996)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차별적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로 나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멸시를 바탕으로 한 성차별적 태도로, 여성을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는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여긴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성차별적 태도로, 남성을 보완해주고 사랑해주는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

한 여성의 태도도 남성을 향한 적대성(Hostility towards Men)과 남성을 향한 온정성(Benevolence towards Men)로 나뉜다(Glick & Fiske, 1999). 남성을 향한 적대성은 남성을 통제적이고 시혜적인 존재로 그리며, 남성이 여성을 멸시하고 성적으로 희롱한다고 생각하는 적대적인 태도이다. 반면에 남성을 향한 온정성은 남성을 권위자, 보호자로서 존경하는 동시에, 남성을 여성이 가정에서 돌보고 챙겨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온정적 태도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남성에 대한 태도 모두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연구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 남성을 향한 적대성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 남성을 향한 온정성은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과 관련이 높았다(Glick, Lameiras, Fiske, Eckes, Masser, Volpato, Manganelli, Pek, Huang, Sakalli-Ugurlu, Castro, D'Avila Pereira, Willemsen, Brunner, Six-Materna & Wells, 2004).

본 연구에서는 2·30대가 성별 집단의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와 성 고정관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년배 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적 태도와 남성을 향한 양가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먼저, 동년배 여성 집단이 남성을 향해 가지는 양가성에 대한 인식을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한 후,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은 동년배 여성들이 남성을 거만하고 여성을 억누르고 희롱

하는 존재로 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반면,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은 동년배 여성들이 남성을 여성의 보호자이자 가정에서 여성의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동년배 남성 집단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을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한 후,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은 동년배 남성들이 여성을 열등하고 성적 매력이나 여성운동을 이용해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존재로 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에 대한 동년배 남성들의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반대로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은 동년배 남성들이 여성을 따뜻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호와 애정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에 대한 동년배 남성들의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성차별 메타-인식과 성역할갈등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란 성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로써,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구속, 평가절하,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O'Neil, 1990; 하문선, 김지현, 2017에서 재인용). 성역할갈등을 더 강하게 느끼는 남성일수록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알콜 중독 문제에 취약했으며,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도움 추구 행동을 억압하고,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공격성향을 보였다(하문선, 김지현, 2017; 우성범, 2017). 성역할갈등은 주로 '남성성'을 위협받고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두려워하여 과도하게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집착과 과도한 경쟁심, 공격성, 심리적 스트레스의 방식으로 나타난다(하문선, 김지현, 2017; Berke, Reidy, Miller & Zeichner, 2017).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맞이한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심화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함, 상대적 박탈감과 취업경쟁, 연애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성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 등을 느끼며 더 이상 여성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치열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박무늬, 민혜영 & 장태훈, 2019).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신자유주의적 교육 아래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으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유사한 성역할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성역할갈등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전통적 여성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전통적 남성성에 부합하는 특질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문선, 김지현(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간 성역할갈등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하지 않았다.

성역할갈등은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를 확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수행저하,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심리상태라는 점에서 일종의 고정관념 위협

(stereotype threat)으로 볼 수 있다(Steele, 1997; Wheeler & Petty, 2001에서 재인용; Wakefield 등, 2013). 성차별 메타-인식은 동년배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지는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기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압력을 반영함으로써 일종의 고정관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높다고 인식한 여성의 경우, 사회와 동년배 남성들이 여성을 열등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부정적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성 고정관념이 틀렸다고 입증하기 위해 과도하게 성취지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높다고 인식하는 남성의 경우, 사회와 동년배 여성들이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긍정적 남성 성역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불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성차별 메타-인식과 이성과의 거리감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메타-고정관념을 가질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당한다는 불쾌감과 해당 부정적인 특성이 실제로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야기한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정서, 외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과 회피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Finchilescu, 2010; Vorauer 등, 1998; Wakefield 등, 2013). 반대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타-고정관념은 외집

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기대를 높여 집단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tera, Verde & Mergingolo, 2015; Vezzali, 2017).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동년배들의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성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동년배들의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성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사람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고 우호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Barreto & Ellemers, 2005; Good & Rudman, 2010; Kilianski & Rudman, 1998; Rudman & Fetterolf, 2014에서 재인용). 특히 여성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적인 남성들이 제공하는 보호, 애정, 따뜻함으로 인해 그들을 연애 상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 & Overall, 2018; Gul & Kupfer, 2019).

그러나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이성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경원과 김혜숙(2008)의 연구에서 일반 여자 대학생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이는 남성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태도라고 인식하는 여성학 전공자들은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Hammond, Overall & Cross(2016)가 실시한 연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 연인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의 질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연인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비롯되는 남성에게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기대가 오히려 ‘남성답게’ 성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여성 연인에 대한 거리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이성과의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성차별 메타-인식과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경험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그룹 내 러티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성운동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이 여성에게 주는 악영향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오보영 & 이상희, 2017). 이를 인식한 후, 이들은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며, 시위 등 여권 운동에 더 힘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몰이해와 배제, 윗세대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책임 부인을 바탕으로 역차별과 반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공유되고 있었다(김수아 & 이예슬, 2017; 박무늬 외, 2019).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차별적인 정보를

연은 남성들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반페미니즘 의식이 강하였으며, 높은 여성혐오 커뮤니티 동조성이 여성혐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외, 2018; 유계숙, 조선아 & 강민지, 2017).

따라서 사회구조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성차별 메타-인식의 양상에 따라 성차별 논쟁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우, 구조적 성차별을 높게 지각하고 동년배들과 반가부장적 인식을 공유한다고 믿을수록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역차별을 지각하고 동년배들이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성역할의 기대한다고 믿을수록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갈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2·30대들의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성차별 메타-인식’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각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를 확인하여 성차별 메타-인식에 따라 자기, 타인, 사회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측

정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들이 나타나는가?

둘째,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에서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부터 만 39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고, 총 3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 중 여성이 201(60.9%), 남성이 129명(39.1%)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4.16세이며 20대(만18~만28세)는 249명(75.5%), 30대(만29세~만39세)는 81명(24.5%)이었다. 결혼 여부가 미혼이거나 비혼인 참여자들은 296명(89.7%), 기혼인 참여자들은 34명(10.3%)이었다.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인 참여자가 13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 98명(29.7%), 대학원 이상 85명(25.8%) 순으로 많았다. 고졸 이하와 2년제 대학 졸업은 각각 6명(1.8%)이었으며 2년제 대학 재학은 2명(0.6%)으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는 서울 175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경기 113명(34.2%), 충청권(대전, 충청) 13명(3.9%),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상) 18명(5.5%), 호남권(광주, 전라) 8명(2.4%), 강원/제주 3명(0.9%) 순으로 많았다.

측정도구

여성의 남성에 대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

동년배 여성 집단이 남성을 향해 가지는 양가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안상수 외(2007)가 번안한 Glick & Fiske(1999)의 남성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AMI)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20개로 ‘남성에 대한 적대성’ 10문항과 ‘남성에 대한 온정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응답자들 모두에게 ‘당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낸 숫자에 표시’하라는 지시문을 주고 문항들을 응답하게 하여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Glick & Fiske(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가 남성에 대한 적대성은 .81~.86, 남성에 대한 온정성은 .79~.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는 .90,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은 .85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은 .90,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은 .85로 나타났다.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동년배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지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Glick & Fiske(1996)의 Ambivalent Sexism Inventory(ASI)를 안상수 외(2007)이 한글로 번역한 후 타당화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24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12문항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응답자들

모두에게 ‘당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낸 숫자에 표시’하라는 지시문을 주고 문항들을 응답하게 하여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안상수 외(200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86,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7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는 .97,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89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94,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90로 나타났다.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meron(2001)의 지각된 개인 차별(Per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 척도와 지각된 집단 차별(Perceived Group Discrimination) 척도를 번안하고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9개로, 자신이 구조적 성차별을 당한다고 지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문항과 한국 여성이 구조적 성차별을 당한다고 지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문항, 한국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지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남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성차별에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

한다.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에서 ‘전혀 아니다’보다 높게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성차별을 당했던 장소들과 마지막으로 성차별을 경험했던 시점에 대한 추가질문을 제공하였다. Cameron(200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개인 차별 척도가 .70, 지각된 집단 차별은 .68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α 가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92, 여성에 대한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85, 남성에 대한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73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α 가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87, 여성에 대한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78, 남성에 대한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은 .53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갈등 척도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연 등 (2012)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남성성역할 갈등검사의 축약형을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성공·권력·경쟁’, ‘감정억제’, ‘일과 가족간 갈등’,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가장 의무감’, ‘남성우월’의 6개 요인별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요인과 ‘남성 우월’ 요인을 각각 ‘동성 간 애정행동 억제’와 ‘동성 우월’로 수정하여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연 등 (20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α 가 .74로 나타났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α 가 .78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거리감

이성과의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Pilkington과 Richardson(1988)이 개발하고 정윤경(2004)이 번역하고 수정한 친밀감 위험척도(RII: Risk in Intimac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사랑에 대하여 주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 8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Pilkington과 Richardson(198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정윤경(2004)의 연구에서는 .85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가 .87로 나타났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Weis, Redford, Zucker, & Ratliff(2018) 연구에서 사용된 ‘페미니즘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feminism)의 문항과 2019년 1월 15일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과 현재 일어나는 성차별 논쟁(여성혐오, 미투, 홍대 불법촬영 편파 수사, 탈코르셋)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eis, Redford, Zucker, & Ratliff(2018) 연구에서 신뢰도가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가 .92로 나타났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설문 링크를 발송 및 게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주의사항과 참여자의 권리, 자료의 용도와 보관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만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특성과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성별 별로 변인들의 신뢰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성별의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의 하위요인으로 각 성별 별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모집단 내에서 개인의 반응 패턴을 통해 이질적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을 찾아 분류하는 군집분석의 변형이다(McLachlan & Chang, 2004; 김은석, 2017에서 재인용).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 정보준거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Sclove, 1987), 2) LO-MENDELL-RUBIN LMR-LRT 검증(Lo, Mendell & Rubin., 2001)과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 4) Entropy(Celeux & Soromenho, 1996)을 사용하였다.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적

합한 모형을 나타낸다(Nylund, Asparouhov, Muthén, 2007). LMR-LRT와 BLRT는 잠재계층이 k인 모형과 k-1인 모형을 비교하는 비교검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k-1 모형이 기각되고, k 모형이 지지된다. Entropy는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분류가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Vermunt & Magidson, 2003; Lubke & Muthen, 2007; 이슬기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더불어 각 프로파일의 유의미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의 수를 결정하고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이후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성차별 각 메타-인식 유형 간에 일곱 가지 하위요인에서 실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에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최근 성차별 경험의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χ^2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 간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검증의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성별 간 t검증

	평균(표준편차)		<i>t</i>	<i>p</i>
	여	남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	3.72(1.04)	2.75(1.05)	-8.276**	.000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	2.16(0.73)	2.51(0.86)	3.808**	.000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3.24(1.44)	2.65(1.12)	-4.159**	.000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3.28(0.97)	3.16(1.04)	-1.045	.297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99(1.47)	2.32(1.25)	-11.046**	.000
여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4.95(1.11)	3.50(1.30)	-10.433**	.000
남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2.47(1.08)	3.05(1.03)	4.817**	.000
성역할갈등	3.11(0.70)	3.01(0.82)	-1.216	.209
이성과의 거리감	2.16(0.71)	1.71(0.63)	-5.938**	.000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3.24(0.72)	2.34(0.74)	-10.990**	.000

p ** < .001, 평균과 표준편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분석 결과,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t=-1.045$, $p=.297$)과 성역할갈등($t=-1.216$, $p=.209$)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주요 변인들 간 성차가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나 성별을 나누어 모든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660$, $p<.01$),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619$, $p<.01$) 간의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416$, $p<.01$) 간의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차별 메타-인

식의 구성요소들이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와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성역할갈등은 남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r=.375$, $p<.01$)과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364$,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성과의 거리감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r=.437$, $p<.01$)과 개인 차원의 성차별 지각($r=.431$, $p<.01$)이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772$, $p<.01$)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갈등은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

표 2. 응답자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1	1-2	2-1	2-2	3-1	3-2	3-3	4	5	6
1-1.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	1	-.009	.379**	.308**	.660**	.619**	-.357**	.375**	.437**	.596**
1-2.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	.441**	1	.138	.332**	-.152*	-.239**	.087	.149*	-.028	-.257**
2-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555**	.534**	1	.716**	.291**	.234**	-.042	.248**	.241**	.227**
2-2.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665**	.581**	.605**	1	.156*	.179*	-.059	.222**	.152*	.199**
3-1.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149	.195*	.416**	.082	1	.746**	-.211**	.364**	.431**	.635**
3-2.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238**	-.129	-.047	.167	.021	1	-.253**	.179*	.314**	.772**
3-3. 남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110	.134	.247**	.132	.489**	.128	1	-.036	-.309**	-.357**
4. 성역할갈등	.377**	.465**	.451**	.443**	.227**	.059	.134	1	.413**	.241**
5. 이성과의 거리감	.293**	.427**	.490**	.387**	.245**	-.051	.214*	.473**	1	.364**
6.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256**	-.119	-.098	.134	-.046	.783**	-.034	.031	.014	1

$p^{**} < .001$, $p^{*} < 0.05$, 대각선 위는 여성, 대각선 밑은 남성의 상관관계

각과 남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r=.465, p<.0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r=.451, p<.01$),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r=.443,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성과의 거리감은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r=.427, p<.0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r=.490,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는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r=.256, p<.01$)와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r=.783, p<.01$)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여

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의 하위요인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프로파일 모형에서 5개의 프로파일 모형까지 프로파일 수를 1개씩 늘려가며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saBIC와 LMR-LRT와 BLRT의 유의도, Entropy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여성의 경우, BLRT는 모든 모형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LMR-LRT는 프로파일 수가 5개일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였다. AIC와 BIC, saBIC는 프로파일 수가 3개일 때 대폭 감소한 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Entropy는 모든 유형이 0.8을 넘었으나, 프로파일 수가 3개일 때 0.93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와 각 잠재프로파일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여성의 경우 가장 합당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 남성의 경우, BLRT는 모든 모형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나

표 3.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여성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LRT	BLRT	1	2	3	4	5
2	3974.337	4047.010	3977.311	0.898	.000	.000	62	139			
3	3795.724	3894.823	3799.778	0.934	.005	.000	57	106	38		
4	3694.027	3819.553	3699.163	0.910	.002	.000	48	62	38	53	
5	3637.898	3789.850	3644.115	0.914	.107	.000	20	30	37	54	60
남성											
2	2563.148	2626.064	2556.485	0.834	.000	.000	60	69			
3	2541.795	2627.589	2532.709	0.791	.416	.000	47	58	24		
4	2511.137	2619.810	2499.629	0.852	.057	.000	45	3	47	34	

LMR-LRT는 프로파일 수가 2개일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AIC와 BIC, saBIC는 집단 수가 3개일 때 증가했다가 4개일 때 다시 감소했으며, Entropy는 프로파일 수가 3개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0.8이 넘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와 각 잠재프로파일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남성의 경우 가장 합당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로 정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라 성차별 메타-인식 양상은 여성의 경우 3개의 집단, 남성의

경우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성별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소속원수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명의 여성 중 57명(28.4%)이 집단 1, 106명(52.7%)이 집단 2, 38명(18.9%)이 집단 3으로 분류되었고, 129명의 남성 중 60명(46.5%)이 집단 1, 69명(53.5%)이 집단 2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의 명칭은 같은 성별의 프로파일 간 잠재추정치를 비교분석하여 부여하였다. 프로파일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여성은 표 4와 그

표 4. 여성 응답자 잠재 프로파일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검증 결과

	유형 1 성차별 둔감형 여성	유형 2 성차별 민감형 여성	유형 3 성차별 저항형 여성	<i>F</i>	Post hoc (Scheffé)
	M(SD)	M(SD)	M(SD)		유형
1-1.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	2.54(0.67)	4.18(0.74)	4.23(0.77)	105.552***	3,2>1
1-2.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	2.32(0.73)	2.19(0.76)	1.81(0.55)	6.145**	1,2>3
2-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2.43(0.84)	4.36(0.76)	1.34(0.41)	450.534***	2>1>3
2-2.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2.85(0.80)	3.89(0.62)	2.22(0.74)	84.373***	2>1>3
3-1.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2.26(1.00)	4.61(1.02)	4.83(0.91)	119.958***	3,2>1
3-2. 여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66(1.05)	5.41(0.64)	5.59(0.50)	94.428***	3,2>1
3-3. 남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01(0.99)	2.35(1.08)	2.04(0.92)	11.945***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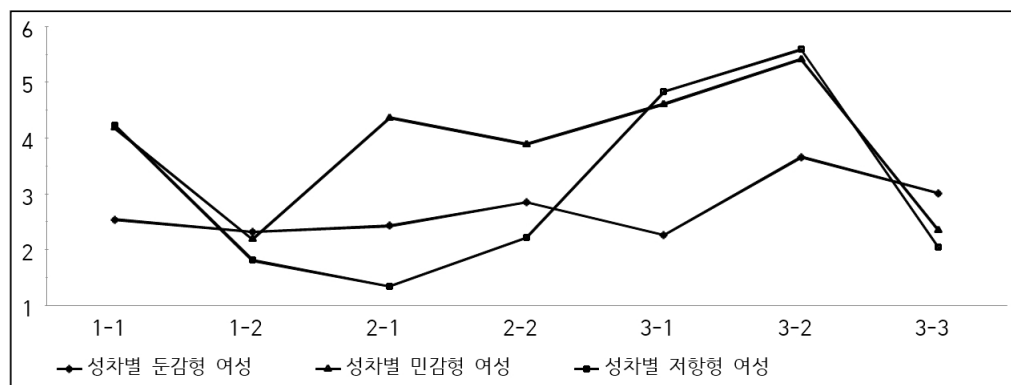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응답자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별 프로파일 양상

표 5. 남성 응답자 잠재 프로파일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결과

	유형 1	유형 2	<i>t</i>	<i>p</i>
	성평등 인식형	역차별 인식형		
	남성	남성		
	M(SD)	M(SD)		
1-1.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	2.02(0.72)	3.39(0.86)	-9.683***	.000
1-2.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	1.90(0.56)	3.03(0.73)	-9.799***	.000
2-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1.87(0.76)	3.33(0.67)	-9.800***	.000
2-2.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2.32(0.70)	3.89(0.67)	-12.939***	.000
3-1.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1.94(1.10)	2.64(1.23)	-3.312**	.001
3-2. 여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3.36(1.38)	3.62(1.23)	-1.168	.245
3-3. 남성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2.75(0.99)	3.19(1.00)	-3.206**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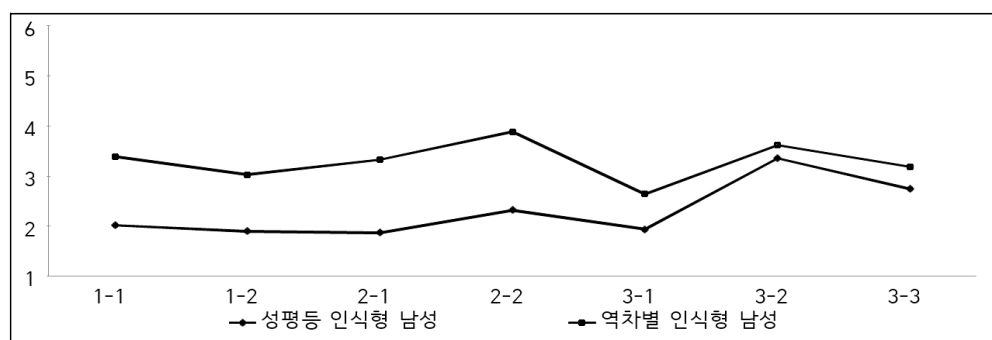


그림 2. 남성 응답자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별 프로파일 양상

림 1, 남성은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여성의 경우, 프로파일 1의 여성들은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에 비해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과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의 평균이 매우 낮았고,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들의 평균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 요인은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보다 확연히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 대상 성차별 요인은 다른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프로파일 1의 여성들은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에 비해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을 향한 한국 사회의 성차별의 심각성과 가부장적 남성들을 향한 동년배 여성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파일을 ‘성차별 둔감형 여성’으로 명명했다.

프로파일 2의 여성들은 여성 대상 성차별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편이었으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은 평균을 보여 동년배들의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프로파일 2의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년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파일을 ‘성차별 민감형 여성’으로 명명했다.

프로파일 3의 여성들은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과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요인, 그리고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태도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모두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모든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프로파일 3의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여성 대상 성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가부장적 남성들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적대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동년배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적대성을 낮게 인식하고, 동년배들이 모두 전통적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파일 ‘성차별 저항형 여성’으로 명명했다.

남성의 경우, 프로파일 1의 남성들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

각의 하위요인의 평균이 모두 프로파일 2의 남성보다 낮았다.

이는 프로파일 1의 남성들이 프로파일 2의 남성들에 비해 동년배들의 성차별적 태도와 한국 사회의 성차별 및 역차별 수준을 비교적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파일을 ‘성평등 인식형 남성’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의 남성들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의 하위요인의 평균이 모두 ‘성평등 인식형 남성’보다 높았지만, 여성 대상 성차별 지각 요인에서는 ‘성평등 인식형 남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프로파일 2의 남성들이 여성 대상 성차별은 ‘성평등 인식형 남성’들보다 비슷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성 대상 차별, 즉 역차별은 ‘성평등 인식형 남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파일을 ‘역차별 인식형 남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 프로파일의 차이가 실제로 유의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성은 3개의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후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남성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여성은 표 4, 남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 민감형 여성’이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에 비해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F=105.552, p<.001$), 개인 차원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F=119.958, p<.001$), 여성에 대한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F=94.428, p<.001$)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대로 남성에 대한 성차별 수준은 다른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F=11.945, p<0.001$). 즉, ‘성차별 둔감형 여성’이 다른 프로파일의 여성들보다 한국 사회의 여성 대상 성차별은 유의미하게 낮게, 남성 대상 성차별은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남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적대적 태도와 성 고정관념을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차별 저항형 여성’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F=6.145, p<.01$),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F=450.534, p<.001$),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F=84.373, p<.001$)이 나머지 두 프로파일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성차별 저항형 여성’이 동년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제외한 동년배들의 이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성평등 인식형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168, p=.245$). 이는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성평등 인식형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동년배들의 인식과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남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더 높게 지각하지만, 여성에 대상 성차별에 대한 지각은 ‘성평등 인식형 남성’과 크게 차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프로파일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

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검증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유의한지 탐색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여성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남성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응답자들은 성역할갈등($F=7.767, p<.01$), 이성과의 거리감($F=15.021, p<0.001$),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F=67.735, p<0.001$) 모든 변인들에서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변인에서 여성 유형 간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갈등의 경우 ‘성차별 민감형 여성’이 ‘성차별 둔감형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차별 저항형 여성’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성과의 거리감의 경우, ‘성차별 민감형 여성’과 ‘성차별 저항형 여성’이 ‘성차별 둔감형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유의하진 않았지만 ‘성차별 민감형 여성’이 ‘성차별 저항형 여성’보다 높았다.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 ‘성차별 민감형 여성’과 ‘성차별 저항형 여성’이 ‘성차별 둔감형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유의하진 않았지만 ‘성차별 저항형 여성’이 ‘성차별 민감형 여성’보다 높았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모든 변인들에서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성평등 인식형 남성’보다 더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성역할갈등($t=-5.162, p<0.001$)과 이성과의 거리감($t=-4.707, p<0.001$)에서만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유형 간

표 6.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검증 결과

	유형 1 성차별 둔감형 여성 (57명)	유형 2 성차별 민감형 여성 (106명)	유형 3 성차별 저항형 여성 (38명)	<i>F</i>	Post hoc (Scheffé)
	M(SD)	M(SD)	M(SD)		
성역할갈등	2.83(0.68)	3.27(0.64)	3.09(0.80)	7.767**	2>1
이성과의 거리감	1.75(0.66)	2.34(0.66)	2.30(0.74)	15.021***	2,3>1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2.52(0.63)	3.52(0.55)	3.56(0.45)	67.735***	3,2>1
	유형 1 성평등 인식형 남성 (60명)	유형 2 역차별 인식형 남성 (69명)		<i>t</i>	<i>p</i>
	M(SD)	M(SD)			
성역할갈등	2.64(0.83)	3.33(0.66)		-5.162***	.000
이성과의 거리감	1.45(0.39)	1.93(0.62)		-4.707***	.000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2.28(0.77)	2.40(0.71)		-0.930	.354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0.930$, $p = .354$).

프로파일별 인구통계학적 분석

추가적 분석으로 분류된 성차별 메타-인식 프로파일별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결혼여부)과 최근 성차별 경험 시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같은 성별의 프로파일들 간 χ^2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변인에 크기가 5 미만인 셀이 존재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프로파일 내 비율만 비교해본다면, ‘성차별 둔감형 여성’이 다른 두 프로파일의 여성보다 30대(33.3%)와 기혼(15.8%)의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성차별 경험 시기를 최근 2년 이내라고

답한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성차별 민감형 여성’(54.5%)과 ‘성차별 저항형 여성’(70.3%)은 최근 경험한 성차별이 6개월 이내라고 답한 여성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성차별 둔감형 여성’이 다른 두 프로파일의 여성들보다 30대와 기혼의 비율이 높으며, 최근 성차별 경험을 한지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성평등 인식형 남성’은 마지막으로 경험한 역차별의 시점이 2년 이상 지난 비율이 가장 높은(66.7%) 반면, ‘역차별 인식형 남성’은 최근 6개월 이내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43.2%). 이는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성평등 인식형 남성’보다 더 최근에 역차별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표 7.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근 성차별 경험 시점

여성 응답자		성차별 둔감형 여성 (57명)			성차별 민감형 여성 (106명)			성차별 저항형 여성 (38명)			합계	χ^2/p
		빈도 (명)	유형내 (%)	전체 (%)	빈도 (명)	유형내 (%)	전체 (%)	빈도 (명)	유형내 (%)	전체 (%)		
연령	20대	38	66.7	22.6	94	88.7	56.0	36	94.7	21.4	168	17.338***
	30대	19	33.3	57.6	12	11.3	36.4	2	5.3	6.1	33	
결혼 여부	미/비혼	48	84.2	25.7	102	96.2	54.5	37	97.4	19.8	187	9.617**
	기혼	9	15.8	64.3	4	3.8	28.6	1	2.6	7.1	14	
최근 성차별 경험 시기	최근 6개월 이내	7	21.2	7.9	56	54.9	62.9	26	70.3	29.2	89	81.104***
	최근 6개월 이상 1년 이내	5	15.2	19.2	20	19.6	76.9	1	2.7	3.8	26	
	최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	3	9.1	15.8	9	8.8	47.4	7	18.9	36.8	19	
	최근 2년 이상	18	54.5	47.4	17	16.7	44.7	3	8.1	7.9	38	
남성 응답자		성평등 인식형 남성 (60명)			역차별 인식형 남성 (69명)						합계	χ^2/p
연령	20대	34	56.7	42.0	47	68.1	58.0				81	1.801
	30대	26	43.3	54.2	22	31.9	45.8				48	
결혼 여부	미/비혼	49	81.7	45.0	60	87.0	55.0				109	.686
	기혼	11	18.3	55.0	9	13.0	45.0				20	
최근 성차별 경험 시기	최근 6개월 이내	5	18.5	20.8	19	43.2	79.2				24	13.514**
	최근 6개월 이상 1년 이내	2	7.4	25.0	6	13.6	75.0				8	
	최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	2	7.4	25.0	6	13.6	75.0				8	
	최근 2년 이상	18	66.7	58.1	13	29.5	41.9				3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30대 여성과 남성 집단의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 즉 성별 집단에 대한 메타-편견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을 성차별 메타-인식(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으로 정의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2·30대들의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각 유형들 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여성은 3가지, 남성은 2가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이 나타났다. 각 성별 내 유형을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과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여성을 살펴보면, ‘성차별 둔감형 여성’은 전체 여성 중 57명(28.4%)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차별에 둔감하고 역차별을 인정하는 현대적 성차별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들에 비해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적대적 태도에 둔감하였으며,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보다 온정적 태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동년배 남성들이 여성을 멸시하기보다는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해당 유형은 여성 유형 중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이 가장 낮고, 성별 갈등에 가장 둔감한 유형으로 보여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전체 여성 중 106명(52.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성차별 민감형 여성’과 전체 여성 중 38명(18.9%)을 차지하는 ‘성차별 저항형 여성’은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적대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차별 민감형 여성’은 동년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성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을 가장 강하고 민감하게 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차별 저항형 여성’은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여성의 남성을 향한 양가성과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들의 수준이 매우 낮아, 동년배 남녀 모두 성차별적 태도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거절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여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높되 ‘성차별 민감형 여성’보다 성별 간 갈등을 낮게 인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경우, 전체 남성 중 69명(53.5%)을 차지하는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전체 남성 중 60명(46.5%)을 차지하는 ‘성평등 인식형 남성’에 비해 동년배들의 성차별적 태도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과 한국 사회의 역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성평등 인식형 남성’을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 ‘역차별 인식형 남성’을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대상 차별에 대한 지각은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역차별 인식형 남성’들이 인식하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의 압력이 차별받는 여성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기 보다는 남성으로서 짊어야 하는 부담에 대한 민감한 지각과 반발로만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역차별 인식형 남성’이 ‘성평등 인식형 남성’보다 역차별과 성별 간 갈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이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보다 성역할갈등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남성성에 대한 동년배 여성들의 온정적 기대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강해야 한다는 동년배 남성들의 공유된 내러티브(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성역할갈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가졌음을 고려했을 때,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남성성의 위협에 대한 높은 지각과 여성들을 뛰어넘어 남성성을 유지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져 성역할갈등을 유발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Berke, Reidy, Miller, Zeichner, 2017). 여성의 경우, ‘성차별 민감형 여성’만이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성차별 둔감형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역할 갈등을 보였다. 이는 ‘성차별 민감형 여성’이 다른 두 유형의 여성들보다 동년배 남성들의 성차별적 태도와 평가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Wakefield 등(2013)의 연구에서 자신의 집단이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부정적인 메타-고정관념에 노출된 구성원들이 해당 고정관념을 확증시키지 않으려고 도움-요청하는 행동을 지체하였던 것처럼, ‘성차별 민감형 여성’들도 여성이 열등하고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Nguyen, Ryan, 2008).

셋째,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일수록 이성과의 거리감을 더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이 이성과의 거리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의 여성들이 남성을 자신을 차별하고 해칠 수 있는 존재이자,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경쟁자로 받아들여 남성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Rogers, Yang, Way, Weinberg, Bennet(2019)의 연구에서 남성성 순응도가 높은 여성 청소년들이 동년배를 경쟁자로 받아들여 동년배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반면, 여성의 남성을 향한 적대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에 둔감하고,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

주의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던 ‘성차별 둔감형 여성’은 남성과의 거리감을 매우 낮게 보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질 것 같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Cross & Overall, 2018; Gul & Kupfer, 2019). 남성의 경우,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남성 대상 성차별 실태에 대한 지각, 여성의 남성을 향한 온정성에 대한 인식이 이성과의 거리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졌음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동년배 남성들의 공유된 믿음과 그걸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각되는 현실, 그리고 동년배 여성들이 남성으로서의 보호와 애정을 바랄 것이라는 부담이 여성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여성은 지나친 경쟁이 이뤄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경쟁자이자 자신에게 보호와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과의 거리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박무늬 외, 2019; Gul & Kupfer, 2019).

넷째, 여성은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일수록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 남성은 두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의 성차별 실태와 동년배 여성들 간 공유하는 반가부장적인 내러티브를 인식하기 때문에 성차별 문제에서 여성의 입장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남성들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남성성의 위협과 한국 사회의 역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성차별 문제에서 여성의 입장을 크게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역차별 인식형 남성’과 ‘성평등

인식형 남성' 간 여성 대상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별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일수록 더 최근에 성차별 혹은 역차별을 겪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들은 최근 성차별 시점이 6개월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유형들은 2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을수록 여성은 성차별, 남성은 역차별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었거나 같은 경험을 해도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들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과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은 '성차별 둔감형 여성' 유형이 다른 여성 유형들에 비해 30대와 기혼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들은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들고 결혼생활을 할수록 성차별을 겪을 상황이 더 빈번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보이는 현상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여성들이 생애과정을 밟고 가정을 꾸리면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주는 보호, 헌신, 친절과 같은 관계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로써 성차별에 둔감해지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관계적 이익을 더 많이 인식하는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여성들이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을 가진 여성들보다 결혼을 많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현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에 대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간 갈등은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성차별 메타-인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성차별 메타-인식 수준이 높은 유형일수록 한국사회의 여성 대상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상 속 성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이러한 사회와 남성에게 대해 동년배 여성들이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성차별 메타-인식 수준이 높은 유형일수록 성차별 논쟁에 대해서도 여성의 입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반면, 남성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높은 '역차별 인식형 남성'은 가부장적 지위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인 시대에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여전히 압박받으며 여성만큼 남성도 역차별을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성별 간에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성차별 논쟁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집단 간 극화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한국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여성의 입장에 대한 물이해에 기반한다는 점(박무늬 외, 2019)과 성차별을 당하는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유도했더니 남성들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신념이 낮아졌다(Becker & Swim, 2011)는 점을 보아, 이성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별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성별이 겪는 불편함이 모두 서로가 아닌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기인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성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를 가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현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 실태에 대한 통합적인 인

식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낮은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들은 성차별 문제 및 성별 간 갈등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성별 내 유형 간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차별 메타-인식을 지나치게 둔화시키는 요인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와 결혼과의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메타-인식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방식, 이성과의 실생활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높은 성차별 메타-인식이 사회적인 사안을 넘어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다시 성별 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성차별 메타-인식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적절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문항들이 성별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성별 집단에 대한 메타-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양가적 성차별주의, 남성성에 대한 양가성)의 경우 개발한지 오래되어 현재 시대상을 타당하게 나타내지 못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변인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나 성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동조성과 같이 성차별 메타-인식과 관련된 변인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성차별 메타-인식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분포가 20대, 미혼/비혼, 수도권과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여성에 많이 편중되었으며, 생물학적 성별과 동일하게 정체화한 이성애자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가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유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규철 (2019. 6. 4.) 국민 10명 중 8명 ‘사회 갈등 심하다’ “분배방식·가치관 변화 요구 높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5197.
-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은석 (2017). 일-가정 양립 유형화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의 가정→일 양립에 대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8).

-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7).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2019). 청년 세대(20~30)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1), 85-111.
- 서경원, 김혜숙 (2008). 대상의 성차별주의 정도와 여성에 대한 긍정 감정 지각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에게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478-479.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17).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성범 (2017). 한국 남성규범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보영, 이상희 (2017). 인터넷 여성운동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성적 정체감 및 자아정체감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CQR-M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91-416.
- 유계숙, 조선아, 강민지 (2017). 여성혐오 개념화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22(3), 401-429.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이슬기 (2019). 남성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 유형과 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문선, 김지현 (2017). 남성 성역할갈등의 남녀 보편화 가능성 검증: 남녀 간 잠재평균분석과 등가제약모형의 적용. 상담학연구, 18(3), 1-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결과 발표.
- Becker, J. C., & Swim, J. K. (2011). Seeing the Unseen: Attention to Daily Encounters With Sexism as Way to Reduce Sexist Belief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2), 227-242.
- Berke, D., Reidy, D., Miller, J. and Zeichner, A. (2017). Take it like a man: Gender-threatened men's experience of gender role discrepancy, emotion activation, and pain toleran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8(1), 62-69.
- Cameron, J. E. (2002). Social Identity, Modern Sexism,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Group Discrimination by Women and Men. *Sex Roles*, 45(11-12), 743-766.
- Finchilescu, G. (2010). Intergroup Anxiety in Interracial Interaction: The Role of Prejudice and Metastereotypes. *Journal of Social Issues*, 66(2), 334-351.
- Glick, P. and Whitehead, J. (2010). Hostility Toward Men and the Perceived Stability of Male Dominance. *Social Psychology*, 41(3), 177-185.
- Glick, P., & Fiske, T.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9).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beliefs about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519-536.
- Glick, P., Lameiras, M., Fiske, S., Eckes, T., Masser, B., Volpato, C., Manganelli, A., Pek, J., Huang, L., Sakalli-Ugurlu, N., Castro, Y., D'Avila Pereira, M., Willemssen, T., Brunner, A., Six-Materna, I. and Wells, R. (2004). Bad but Bol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Predict Gender Inequality in 16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713-728.
- Gul, P. and Kupfer, T. (2019). Benevolent Sexism and Mate Preferences: Why Do Women Prefer Benevolent Men Despite Recognizing That They Can Be Undermi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1), 146-161.
- Hammond, M., Overall, N. and Cross, E. (2016). Internalizing sexism within close relationships: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s' benevolent sexism promote women's endorsement of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2), 214-238.
- Matera, C., Verde, S. D., Mergingolo, P., (2015). I Like You More if I Think You Like Me: The Effect of Metastereotypes on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eafn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5, 381-394.
- Nguyen, H. and Ryan, A. (2008). Does stereotype threat affect test performance of minorities and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6), 1314-1334.
- Putra, I. (2014). The role of ingroup and outgroup metaprejudice in predicting prejudice and identity undermining.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0(4), 574-579.
- Rogers, L., Yang, R., Way, N., Weinberg, S. and Bennet, A. (2019). "We're Supposed to Look Like Girls, But Act Like Boys": Adolescent Girls' Adherence to Masculinity Nor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6.
- Rudman, L. and Fetterolf, J. (2014). How accurate are metaperceptions of sexism? Evidence for the illusion of antagonism betwee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7(3), pp.275-285.
- Swim, J., Aikin, K., Hall, W. and Hunter, B.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pp.199-214.
- Vezzali, L. (2017). Valence matters: Positive meta-stereotypes and interethnic interac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2), 247-261.
- Vorauer, J. D., Main, K. J., O'Connell, G. B. (1998). How Do Individuals Expect to Be Viewed by Members of Lower Status Groups? Content and Implications of Meta-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917-937.
- Wakefield, J., Hopkins, N. and Greenwood, R. (2013). Meta-stereotypes, Social Image and Help Seeking: Dependency-Related Meta-stereotypes Reduce Help-Seeking Behaviour.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5), 363-372.

- Weis, A., Redford, L., Zucker, A. and Ratliff, K.
(2018). Feminist Identity, Attitudes Toward
Feminist Prototypes, and Willingness to
Intervene in Everyday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2(3), 279-290.
- Wheeler, S. and Petty, R. (2001). The effects of
stereotype activation on behavior: A review of
possible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27(6), 797-826.
- 논문 투고일 : 2020. 03. 18
1 차 심사일 : 2020. 03. 25
게재 확정일 : 2020. 07. 01

Latent Profile Analysis of 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Group Differences in Gender Role Conflict, Sense of Distance from the Opposite Sex, and Support for Gender Discrimination Issues

Juyon Yu¹⁾

Hyunnie Ahn²⁾

¹⁾Ewha Womans University / Master's degree student

²⁾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based on 'perceived ambivalence toward men among women', 'perceived ambivalent sexism among men', 'perceived gender(reverse-) discrimination in Korea'. After identifying the latent classes,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sense of distance from the opposite sex, and support for gender discrimination issues were explored among the classified groups. As a result, 3 latent classes among women and 2 latent classes among men were identified. Latent classes among women were named 'women with low sensitivity of sexism', 'women with high sensitivity of sexism' and 'women against sexism' and latent classes among men were named 'men with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men with percep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Types with higher levels of 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were related with higher gender role conflict and higher sense of distance from the opposite sex. Among women, types with higher levels of meta-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perceived higher level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showed more support for gender discrimination issues while among men, types with higher levels of meta-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only perceived higher levels of revers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implications about the severe gender conflict among Korean young adult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article.

Key words : 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Social Conflict, Latent Profile Analysis